호남권, 수출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 저조

무역협회 분석…中企·소비재 중심 경제구조 열악

지난해 광주 9만5000개·전남 12만1000개 창출

경제 비슷한 경북 절반 그쳐

광주·전남은 중소기업과 소비재 중심의 열악한 경제구조탓에 수출에 의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다른 지역에 비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우리나라 지자체별 수출 특성과 일자리 창출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의 지난해 수출에 의한 일자리 창출 수는 각각 9만5000개와 12만1000개를 기록했다. 경제 상황이 비슷한 대구와 경북이 각각 11만5000개와 31만2000개인점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수치다.

경기도가 103만9000개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 47만7000개, 울산 35만개, 충남 26만9000개, 서울 24만3000개, 인천 23만6000개, 부산 16만2000개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수출에 의한 일자리 유발 비중 역시 광주와 전남이 각각 13.5%와 13.2%를 기록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적으론 울산이 수출에 의한 일자리 비중이 64.1%에 달해 수출이 활성화될 수록 일자리가 늘어나는 도시로 분류됐다. 이어 경남(29.5%), 충남(23.6%), 경북(22.5%), 경기(17.4%), 충북(17.2%), 인천(16.4%)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수출액은 경기 지역에서 981억달러(19.8%), 충남 662억달러(13.4%), 울산 653억달러(13.2%), 서울 534억달러(10.8%), 경남 453억달러(9.1%) 등을 기록했다. 광주와 전남은 각각 147억달러(3.0%)와 279억달러(5.6%)를 기록 전국 17개 지자체 중 10위와 8위를 차지했다.

전체 수출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광주와 전남은 중소기업 비율이 낮고 소비재 수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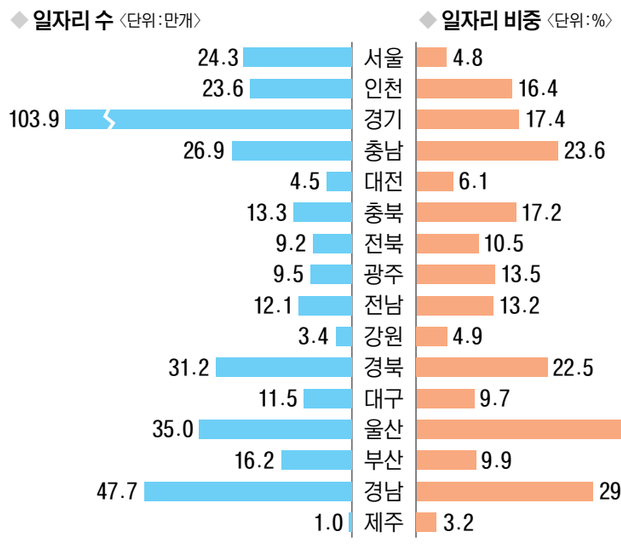
수출규모가 큰 대구와 부산은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이 각각 57.3%와 41.1%로 높게 나타난 반면 광주와 전남은 각각 6.4%와 12.9%을 기록해 전국 평균 19.8%를 밑돌았다. 소비재 비중도 높아 광주는 46.7%를 기록하며 전국(평균 13.4%) 최고치를 나타냈다.

광주·전남은 로봇, 바이오헬스, 항공드론, 프리미엄 소비재, 에너지신산업, 첨단신소재 등 8대 신산업 수출에서도 소외됐다. 신산업의 수출 비중이 2011년 6.8%에서 2016년 11.1%로 상승하며 규모가 점진적으로 커지는 가운데 광주와 전남은 각각 7.6%와 1.1%로 저조했다.

이와관련 지역 경제계에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지역별 수출구조를 반영한 정책 마련 등 차별화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역협회 동향분석실 강내영 연구원은 "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역별 수출 특성을 반영한 정책과 차별화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수출이 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친기업 환경조성과 더불어 세제와 금융 등 인센티브 강화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 제조업 수출로 유발된 일자리 현황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26.64 (-3.71)
- 금리 (국고채 3년) 2.21% (+0.03)
- 코스닥 756.46 (+15.08)
- 환율 (USD) 1118.10원 (-2.50)

내년 주식시장 '장밋빛'

경제 전반 온기…코스닥 최대 1000·코스피 3060 전망

내년 코스피가 경기 호조에 힘입어 2900~3060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증권사들의 전망이 나왔다. 최근 강한 상승세를 탄 코스닥지수는 내년에 1000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KB증권은 14일 "코스피가 내년 3,060까지 상승할 수 있다"며 "지금 경제 상황은 1986년 3저 호황 때와 매우 닮아 있어 내년 증시는 전반적으로 강세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내년 경제 상황의 특징을 글로벌 자금의 신흥국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달러 약세와 위안화 강세, 원자재 신흥국보다 제조업 신흥국에 유리한 유가 약세 등으로 꼽았다.

이은택 연구원은 "달러 약세와 유가 약세의 조합이 빚어진 1986~1989년에는 코스피가 무려 7배나 상승했다"고 말했다.

KB증권은 별도 보고서를 통해 코스닥지수가 내년 1000에 도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놨다.

임상국 연구원은 "2018년 코스닥 1000이 불가능한 지수대는 아니다"라며 "정책, 수급, 실적,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성장성 등 코스닥 시장에 우호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은 내년 코스피 상단으로 2,900을 예상했다.

윤희도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이날 펴낸 '2018 아웃룩 다이나믹 코리아 : 온기의 확산' 보고서 머리말에서 "내년 코스피는 2900까지 상승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는 정보기술(IT)과 특정 업종의 쏠림 현상이 심했지만, 내년에는 경제 전반에 온기가 확산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경기소비재, 산업재 등 경기민감 업종에 속한 회사의 이익이 많이 늘어나고 주가도 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삼성 TV '더 프레임'

美 매거진 추천선물 선정

삼성전자는 삼성 라이프스타일TV '더 프레임(The Frame)'이 미국 오프라 매거진(O, The Oprah Magazine)에서 발표하는 '오프라가 가장 좋아하는 것 2017'에서 'Must-See TV'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세리프 TV에 이어 2년 연속 삼성 TV가 이름을 올렸다. 2000년부터 시작된 오프라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미국 유명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가 한 해 동안 화제가 된 각 분야의 제품들 가운데 직접 선정해 발표한다.

오프라 매거진은 더 프레임에 대해 "이 제품이 TV라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마침내 TV의 블랙 화면이 하나의 작품이 되었다"고 호평했다.

더 프레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오프라 매거진 뿐 아니라 전 세계 매체에서 이어지고 있다.

패션 잡지 보그는 TV화면이 꺼져 있을 때 검은 화면 대신 유명 예술 작품이나 개인 사진 등을 액자처럼 보여주는 더 프레임의 '아트 모드'와 복잡한 TV 케이블을 하나의 투명 케이블로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투명 광케이블'을 '하나의 예술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김대성기자bigkim@

아시아나 임직원 인도 봉사 인도 뉴델리 '마하비르 엔클라브' 마을에서 아시아나항공 임직원 봉사단이 학생들과 '만들기 교실'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

은행권, 내일 수능일 10시~오후 5시 영업

은행연합회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6일 은행 영업을 평소보다 한 시간 늦춘 오전 10시에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폐점시간도 한 시간 미룬 오후 5시로 조정한다.

은행연합회는 "시험일 아침에 수험생과 감독관, 학부모의 이동으로 교통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시험일에 한해 은행 영업시간을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시민 90% "소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

보해양조 설문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가 최근 광주·전남 소주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소주의 핵심은 '물'이란 답변이 가장 많이 나왔다.

우라늄 청정지역인 장성의 지하 253m 천연암반수로 잎새주와 복분자주를 만드는 보해는 제품에 대한 확신을 갖고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원하는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겠다고 밝혔다.

보해양조는 최근 광주·전남 성인 300명을 대상으로 소주 선택기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 중 약 절반인 147명이 '물'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가격과 광고모델, 알코올 도수 등의 대답이 뒤를 이었다.

보해는 '살충제 계란', '발암물질 생리대' 등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상황에서 지역민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90%가 넘는 276명이 '불안하다'고 답했다. '괜찮다'고 답한 사람은 24명에 그쳤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보해가 만드는 잎새주와 보해 복분자주, 순희 막걸리는 물 맑은 장성의 지하 253m 천연 암반수로 만드는 만큼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